

2026. 10. 29.(목)
 보도시점 협약식 시작(14:30) 이후 배포 2026. 10. 29.(목)

편지와 함께 먹거리, 집배원이 그냥드림

전하며 어려움 살핍니다

-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업무협약(MOU), 10개 지역 시범운영 -
- 직접 방문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장애인, 섬·벽지 거주민 등 취약계층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
- 배달 과정에서 확인한 위기 징후로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9일(목)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정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그냥드림 물품을 배달하며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개요 >

- (이용 대상) 거동불편자, 섬·벽지 거주민 등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
- (시범 지역) 10개 시군구*
 - * (서울) 서대문구·동대문구, (부산) 북구, (인천) 강화군, (경기) 광명시·부천시, (강원) 평창군,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 (이용 방법) 거주지 지방정부로 신청* → 집배원 대면 배달·대면 수령 원칙
 -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위기관리팀 등 지역별 상이

‘그냥드림’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56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올해 9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약 33만 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중 70,830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지역사회 보호로 연결된 인원은 7,383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코너 직접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추진 중이다.

* (우수사례) 경기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하여 집배원이 가정으로 그냥드림 먹거리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복지상담으로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 운영 중 (6월~)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은 집배원이 매일 오가는 우체국 연결망을 먹거리 지원의 전달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거동 불편자, 섬·벽지 주민 등 거주지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시군구의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위기관리팀 등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우선으로 기본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우체국에 배달을 요청한다. 집배원은 그냥드림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건강·주거·위생 상태 등을 함께 살피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알린다. 시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시군구는 지역 우체국과의 협의 등 준비를 거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지역별 개시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을 거치며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코너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마저도 먼 길이다”라며, “집배원이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는 순간이 복지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mohw.go.kr) 및 전국 푸드뱅크(foodbank1377.org)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 개요
 2.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사업 개요
 3.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접수 연락처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권혜나 (044-202-3250)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승연 (044-202-3259)



붙임1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 배경

- 그냥드림 코너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을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표준모델’** 운영 중

* ①읍면동 복지 연계형(전남 신안 ‘그냥드림카’) ②지역자원 연계형(충남 논산 ‘온동네 배달’) ③공공기관 협력형(경기 부천 ‘집으로 그냥드림’)

- ‘공공기관 협력형’ 모델을 전국으로 넓히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추진

- 우체국 집배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그냥드림이 필요한 가구***에 **물품 배달·안부 확인,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회신**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 (선도사례) 복지위기탈출팀, 지방정부 콜센터당직실 등으로 신청 접수, 유선 상담(지원 필요 등 확인)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10.29.(목) 14:30 ~ 15:00, 세종(우정사업본부(8동))
- (내용)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참석) ^{복지부}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우본}우정사업본부장 등

□ 세부 일정

시 간(30분)		내 용
14:30~14:3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35~14:45	10'	인사말
14:45~14:50	5'	협약서 서명
14:50~15:00	10'	기념 촬영 및 폐회

※ 행사 전체 대외 공개

붙임2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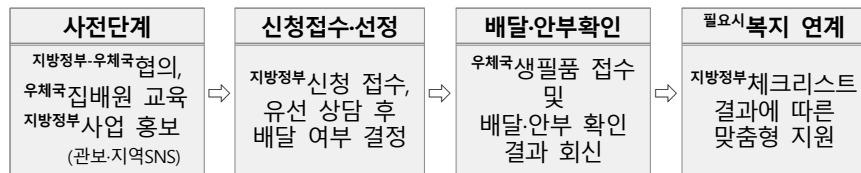
□ 개요

- (추진 배경) '그냥드림' 사업을 우정사업본부의 집배 인프라와 연계하여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 경기도 부천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집으로 그냥드림」 사업('26.6.~)을 선행사례 삼아 타 지방정부로 확대 추진

< 유사사례 : 안부살핌우편서비스 >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생필품 배송하며 안부를 확인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회신하는 행정안전부·지방정부·우정사업본부 협업사업
- ※ '26년 현재 56개 시·군·구와 협업하여 운영 중으로, 가구당 우편요금 5,000원

- (추진 기간) '26. 11월 ~ '27. 12월
 - * 세부적인 서비스 개시 예정일은 지방정부마다 상이하므로 개별 문의
- (재원 소요) 건당 우편요금 5,000원
 - * 시범기간 동안은 우체국공익재단이 절반(2,500원) 부담(~'27.12)
- (추진 방안) 지방정부 신청 접수·유선상담·대상자 선정, 우체국에 정보 전달·발송 요청 → 우체국 배달·생활실태 조사, 결과 지자체 보고



□ 향후 계획

- 참여 희망 지방정부 조사(~'26.12) ※ 현재 10개 시·군·구 참여 추가 수요 상시 접수
- 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26.10.29.)
- 집배원 교육 및 지역별 사업 홍보

붙임3

집배원이 전달하는 그냥드림 접수 연락처

시도 (시·군·구/개소수)	시·군·구	운영장소 (주소)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푸드뱅크마켓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1층)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84-1)
부산	북구	북구 행복나눔 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115번길 11)
인천	강화군	강화군푸드마켓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9, 1층)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소하점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527번길 12, 1층)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75번길 19)
강원	평창군	평창군푸드뱅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0)
충북	영동군	영동나눔푸드뱅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66)
전북	완주군	완주군기초푸드뱅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별산농원길 20)
경북	김천시	김천시기초푸드뱅크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3)

※ 지역별 서비스 개시일 상이(강화·영동·완주의 경우 '27년 이후 개소 예정)